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수용방향 연구

손세규 · 임채광 ·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a Direction of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on Accepting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Se Kyu Son, Chae Kwang Im,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In this study, we tried a study on a direction of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on accepting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by analyzing the related thesis, journals and papers on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published in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present study of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on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here have been 22 studies on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hesis, papers were mainly experimental papers about the bee venom therapy, energy therapy, fasting therapy, and colon therapy, and the journals were actively studied in order of clinical paper, experimental paper, and reference paper about the bee venom therapy, energy therapy, and reflexology. The acceptance of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by the field of oriental medicine through a scientific relation should be conducted more systemically by setting the main academy taking charge of the study on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s on the classification of NCCAM as well as the related academies taking charge of the study on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ach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First, additional studies are needed to make the most of characteristics of each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hrough the main academy and the related academies, and for the next, additional studies are necessary to complement the research trend on each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through the main academy and related academies.

Key words :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 oriental therapy

서 론

건강에 대한 정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¹⁾. 1948년 세계 보건기구(WHO)는 건강에 대해 정의하기를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고 하였다²⁾. 1998년에는 이에 靈的인 요소를 추가하여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靈的으로 정상(well-being)인 상태”로서 정의하였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전반적인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의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

서양의학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1970년대 초반부

터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서양의학은 정통의학(Conventional Medicine), 그 이외의 모든 의학은 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또는 보완의학(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다⁴⁾. 미국에서는 1992년 대체의학연구회의 설립과 더불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국국립보건원에는 다양한 대체의학 치료법들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지금은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38

· 접수 : 2011/10/05 · 수정 : 2012/03/07 · 채택 : 2012/03/28

1) 전세일. 현대의학과 대체의학(계간 과학사상 겨울). 서울, ㈜범양사, pp.3-4, 2001.
2) 김광호, 강탁립 의 5명 편저. 양방 예방의학. 서울, 계축문화사, p.4, 2004.
3) 전세일.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pp.3-4.
4) 전세일. 보완대체의학. 서울, 계축문화사, pp.100-102, 2004.

에서 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⁵⁾⁶⁾⁷⁾.

대체의학이라는 용어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적 개념과 시스템을 가진 의학이라는, 기존의 의학계의 주도권을 가진 정통의학을 대신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보완의학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정통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통합하여 이 둘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의학을 보완대체의학으로 정의하는 것은 현대 서양의학의 개념과 방법론 및 그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이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⁸⁾ 서양의학과와 공존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질병치료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뜻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가벼운 일상적인 질환에서부터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다⁹⁾¹⁰⁾¹¹⁾¹²⁾. 또한 미국에서는 117개의 의과대학 중 약 80여 개의 의과대학에서 보완대체의학을 정식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의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완·대체 요법 이용 실태 조사¹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질병 치료효과에 대해서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질병치료를 위해 양방 치

료에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금액을 보완대체의학의 이용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이는 국내외에서 나타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계에서도 보완대체의학을 수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논의가 신문의 각종 사설 및 칼럼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나¹⁶⁾¹⁷⁾¹⁸⁾¹⁹⁾, 지금까지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의 수용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대체의학을 한의학적인 구도로 연계·운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완대체의학은 서양의학 이외의 모든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포함한 치료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²⁰⁾, 새롭게 제기되는 현대 의학의 한계와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의 하나이며²¹⁾ 이는 질병접근에 있어 병증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 정신과 신체의 조화라는 전일적인 경향을 띠는 의학으로서,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무면허 의료 시술과는 다르다²²⁾. 이러한 보완대체의학의 특성을 볼 때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법과 결합하여 한의학적인 구도로 연계·운용된다면 한의학의 치료법을 다양하게 하고 이는 자연히 한의사의 임상능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연구현황과 수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학문적 연계방향을 설정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수용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수용은 한의학계의 각 분과회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각각의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과회회와의 학문적 연계를 설정해야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수용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전체적인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전체연구현황 중에서 학회지 논문의 보완대체의학 연구현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분과회회의 보완대체의학

5) 오홍근. 보완대체의학. 서울, 아카데미아, pp.19-20, 2008.

6) 현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연구 중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NCCAM을 중심으로 근거 중심의 과학적 방법을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치료 기전을 밝히고 각종 약용식물, 식이보조제 등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여 보완대체의학을 주류의학에 흡수하여 통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현규, 임병목. 세계 전통의학 연구기관 연구 동향 분석. 한국한의학회지 8(2):72-73, 2002.

7) NCCAM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 현황 및 추세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NCCAM의 종합의료체계 연구는 종합의료체계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치료기전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해 그 치료 효과를 체계화하고 치료 기전을 규명하고자 한다. ② NCCAM의 생물학적 치료 연구는 약용 식물 복합체계의 효과를 규명하고 보완대체의학 제약품의 생물학적 작용 기전과 제약학적·약물동력학적 효능, 안정성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공중 보건과 중요하게 관련된 요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생물학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③ NCCAM의 수기요법 연구는 수기요법의 치료기전과 건강증진 효과 및 질병 치료의 효과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객관적으로 생물학적 사망과 연관되어 시술한 수기요법이 치료이전 환자의 기대심리와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④ NCCAM의 심신의학 연구는 심신의학의 시술 특성을 파악하고, 그 치료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연관된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연구하고자 하며,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심신의학의 치료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NCCAM의 에너지의학 연구는 각종 과학적 실험 방법을 이용한 에너지 의학을 연구하고 그 연구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며, 에너지의 근원 및 생물학적 효과와 에너지 치료를 실시하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한창연.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R&D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3):44-45, 2005.

8) 上掲書, pp.19-20.

9) 이용세. 대체의학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1999.

10) 방건웅. 해외에서의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적 대응현황.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

11) 신현규. 이경구, 황대선. 세계 대체의학시장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회지, 2007.

12) 최준영. 외국의 보완요법현황. 의료정책포럼 5(2), 2007.

13) 전세일. 현대의학과 대체의학, pp.12.

14) 이 조사에서 한의학 치료는 제외되었다.

15)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0/2007032000960.html

16) 2010년 04월 30일자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5>.

17) 2010년 06월 03일자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2>.

18) 2010년 06월 03일자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3>.

19) 2010년 09월 02일자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5>.

20) 전세일. 보완대체의학, pp.149-150.

21) 오홍근. 前掲書, p.15.

22) 이용세. 前掲書, p.385.

수용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한의학계의 분과학회와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학문적 연계 방향을 설정하고 이와 함께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악한 보완대체의학 연구의 보완점을 제시하여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체계적인 수용방향을 설정하였다.

Table 1. 한의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보완대체의학 목록

한의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보완대체의학
고열요법(Hyperthermia Therapy), 광선요법(Light Therapy), 꽃요법(Flower Remedy), 단식요법(Fasting Therapy),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 두개천골요법(Cranio Sacral Therapy),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Therapy), 반사요법(Reflexology), 봉약침요법(Bee Venom Therapy), 소리오법(Sound Therapy), 수치료(Hydro Therapy), 식이요법(Diet Therapy),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 에너지요법(Energy Therapy), 요가(Yoga), 요로법(Urine Therapy), 자장요법(Magnetic Field Therapy), 장요법(Colon Therap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 향기요법(Aroma Therapy), 해독요법(Detoxification Therapy)

Table 2. 논문 검색 사이트 목록

검색 사이트명	URL
국회도서관	www.nanet.go.k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DBPIA	www.dbpia.co.k
한국학술정보	kiss.kstudy.com

Table 3. 보완대체의학별 검색어

보완대체의학	검색어
고열요법	고열요법, 고열치료, 온열요법, 온열치료
광선요법	광선요법, 광선치료
꽃요법	꽃요법, 꽃치료, 바크
단식요법	단식요법, 절식요법
동종요법	동종요법
두개천골요법	두개천골요법, CST
명상요법	명상요법, 명상법, 명상수행
반사요법	반사요법, 두침, 이침, 족침
봉약침요법	봉독요법, 봉침요법
소리오법	소리오법, 소리치료
수치료	수치료
식이요법	식이요법, 식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아유르베다
에너지요법	에너지요법, 에너지의학, 양도락, EAV, VEGA
요가	요가
요로법	요로법
자장요법	자장요법, 자기장요법, 자기장치료
장요법	장요법, 관장요법, 장세척
카이로프랙틱	카이로프랙틱
테이핑요법	테이핑요법, 테이핑치료
향기요법	향기요법, 향기치료
해독요법	해독요법, 해독치료

1.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연구현황에 대한 분석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연구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과 학술지 및 학회지의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자료로 설정하였다.

분석대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한의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보완대체의학을 조사하여 22가지의 보완대체의학을 선정하였으며 그 목록은 다음 표 Table 1와 같다. 그 후 Table 2의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DBPIA, 한국학술정보의 검색 사이트에서 2011년 2월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각 보완대

체의학별로 검색어를 선정하여 논문 검색을 실시하였으며 보완대체의학별 검색어는 다음 표 Table 3과 같다.

검색된 논문 중 한의학계의 학위논문 및 학회지나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이 아니거나 중복검색되는 논문, 각 보완대체의학 요법과 관련이 없는 논문 등은 제외한 결과 총 169편의 학위논문과 292편의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을 선정할 수 있었으며 그 중 학위논문은 연도별, 대학별, 보완대체의학별, 논문형식별 연구현황으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고,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은 연도별, 학회지 및 학술지별, 보완대체의학별, 논문형식별 연구현황으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결과

(1) 학위논문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광선요법(Light Therapy), 단식요법(Fasting Therapy),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Therapy), 반사요법(Reflexology), 봉약침요법(Bee Venom Therapy), 식이요법(Diet Therapy),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 에너지요법(Energy Therapy), 장요법(Colon Therapy),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 향기요법(Aroma Therapy)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연도별, 대학별, 보완대체의학별, 논문형식별로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도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1988년에 최초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학위논문의 수는 1990년대 초반에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은 수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0년 중반 이후로는 10편 이상의 학위논문이 해마다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한의학과 인접 학문 간의 활발한 교류를 불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보완대체의학과와의 치료법을 한의학에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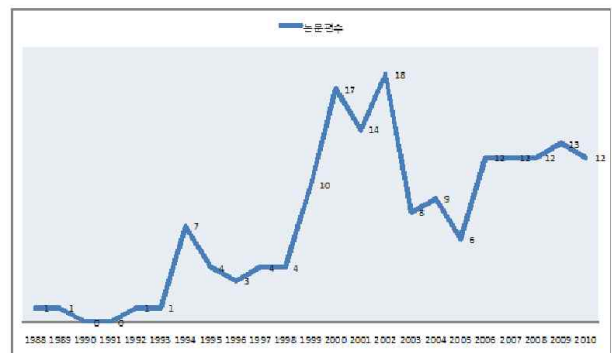


Fig. 1. 연도별 학위논문편수

② 대학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의 대학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169편의 학위논문 중, 경희대학교에서 81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다음으로 원광대학교에서 27편, 동국대학교에서 23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8개 대학에서 5편 내외의 학위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2). 대학별 연구현황은 각 대학마다의 연구특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각 대학의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현황의 활성도에 대한 일률적인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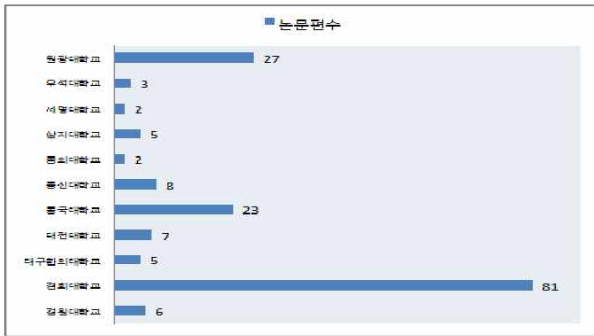


Fig. 2. 대학별 학위논문편수

③ 보완대체의학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의 보완대체의학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169편의 학위논문 중, 봉약침요법을 연구한 학위논문이 106편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요법, 단식요법, 장요법을 연구한 학위논문이 10편 이상 발표되었다. 이외 광선요법, 명상요법, 반사요법,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테이핑요법, 향기요법에 대한 5편 내외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박사학위논문보다는 주로 석사학위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3). 이를 통해 볼 때, 한의학 임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활용도가 높은 봉약침요법 위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전반적으로 박사학위논문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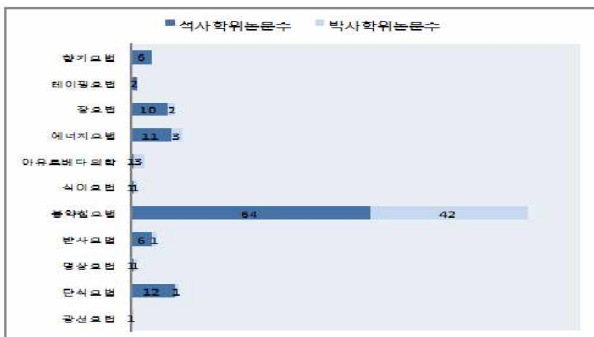


Fig. 3. 보완대체의학별 학위논문편수

④ 논문형식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위논문의 논문형

식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169편의 학위논문 중, 실험논문이 132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헌논문이 8편, 임상논문이 29편의 연구현황을 나타내고 있다(Fig. 4). 이를 보완대체의학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식이요법과 아유르베다 의학은 문헌논문만이 발표되었고, 광선요법, 명상요법은 실험논문만이 발표되었으며, 테이핑요법은 임상논문만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단식요법, 반사요법, 봉약침요법, 장요법, 향기요법은 실험논문과 임상논문만이 발표되었으며, 에너지요법은 문헌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이 모두 발표되었다(Fig. 5). 이를 통해 볼 때,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학위논문은 실험논문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 가지 연구방식에 따른 이론검토와 검증, 임상적 응용의 세 분야가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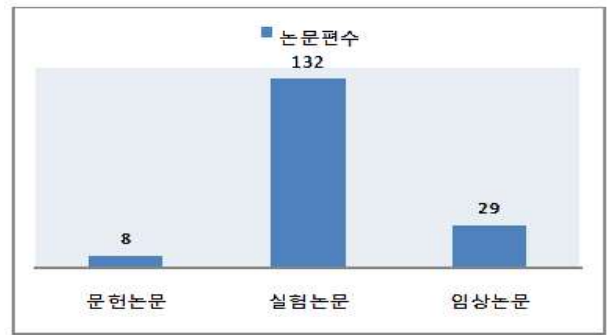


Fig. 4. 논문형식별 학위논문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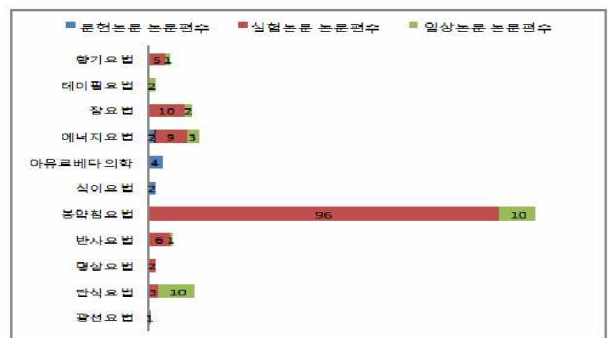


Fig. 5. 논문형식에 따른 보완대체의학별 학위논문편수

(2)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을 살펴보면 고열요법(Hyperthermia Therapy), 광선요법(Light Therapy), 꽃요법(Flower Remedy), 단식요법(Fasting Therapy),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 두개천골요법(Cranio Sacral Therapy),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Therapy), 반사요법(Reflexology), 봉약침요법(Bee Venom Therapy), 소리요법(Sound Therapy), 수치료(Hydro Therapy), 식이요법(Diet Therapy),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 에너지요법(Energy Therapy), 요가(Yoga), 요료법(Urine Therapy), 자장요법(Magnetic Field Therapy), 장요법(Colon

Therap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 향기요법(Aroma Therapy), 해독요법(Detoxification Therapy)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연도별, 학회지 및 학술지별, 보완대체의학별, 논문형식별로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연도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의 연도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1971년에 최초로 논문이 발표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에 이르러 20여 편 이상의 가장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발표논문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Fig. 6). 이는 학위논문의 연구현황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학위논문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한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한의학과 인접 학문 간의 활발한 교류를 불러왔으며 그 중 하나가 보완대체의학과의 치료법을 한의학에 접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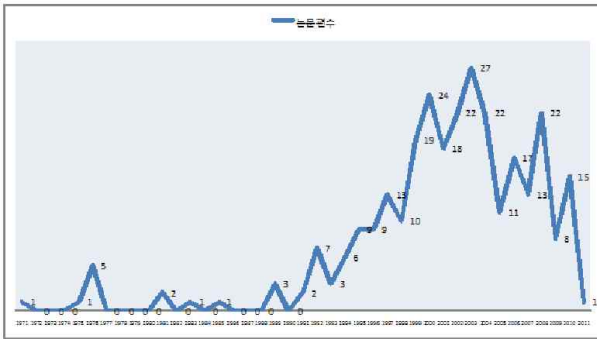


Fig. 6. 연도별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편수

② 학회지 및 학술지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논문의 학회지 및 학술지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292편의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 중,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에서 가장 많은 6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한약침학회지에서 29편, 대한침구학회지에서 22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이외에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논문집,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대한한의학회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서 1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g. 7).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대한약침학회지, 대한침구학회지에서 많은 논문편수가 발표된 것은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보완대체의학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의 보완대체의학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292편의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 중, 봉약침요법에 관한 논문이 55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에너지요법 46편, 반사요법 41편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단식요법, 향기요법, 장요법, 식이요법

에 관한 논문이 20여 편 내외의 발표현황을 나타내고 있다(Fig. 8). 이는 학위논문의 연구현황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한의학 임상에서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활용도가 높은 보완대체의학일수록 활발한 연구현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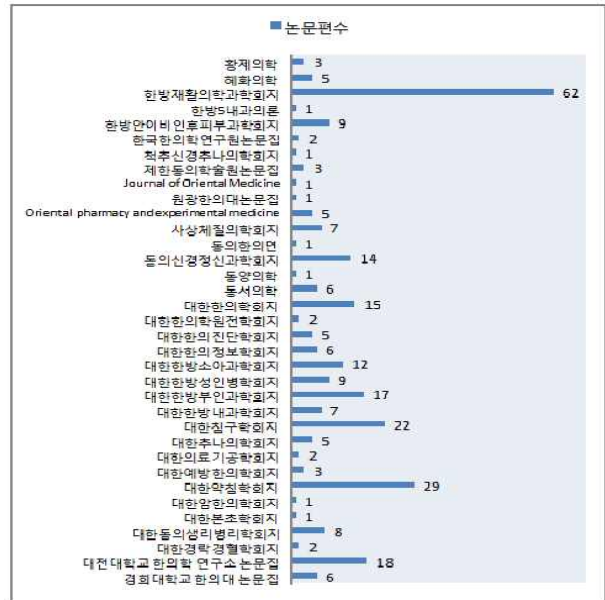


Fig. 7. 학회지 및 학술지별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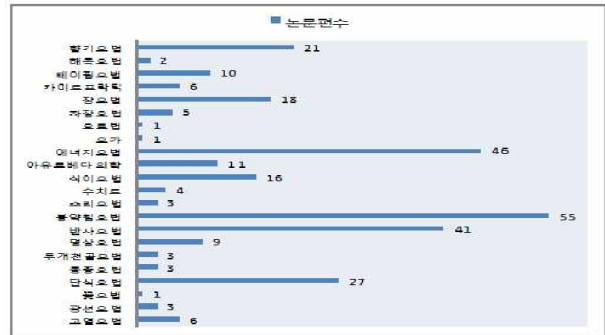


Fig. 8. 보완대체의학별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편수

④ 논문형식별 연구현황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의 논문형식별 연구현황을 분석해보면 총 292편의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 중, 임상논문이 130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험논문 86편, 문헌논문 76편의 연구현황을 나타내고 있다(Fig. 9). 이를 살펴보면 임상논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점이 학위논문의 연구현황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위논문의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은 다양한 임상증례 논문이 학회지 및 학술지에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보완대체의학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꽃요법과 소리요법, 요가, 요료법은 문헌논문만이 발표되었고, 고열요법, 동종요법, 두개천골요법, 수치료, 카이로프랙틱, 해독요법은 문헌논문

문과 임상논문만이 발표되었으며, 광선요법, 자장요법, 테이핑요법은 실험논문과 임상논문만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단식요법, 명상요법, 반사요법, 봉약침요법,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에너지요법, 장요법, 향기요법은 문헌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이 모두 발표되었다(Fig. 10). 이를 통해 볼 때, 단식요법, 명상요법, 반사요법, 봉약침요법,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에너지요법, 장요법, 향기요법은 비교적 세 가지 연구방식에 따른 이론검토와 검증, 임상적 응용의 세 분야가 비교적 유기적인 연관성 속에서 연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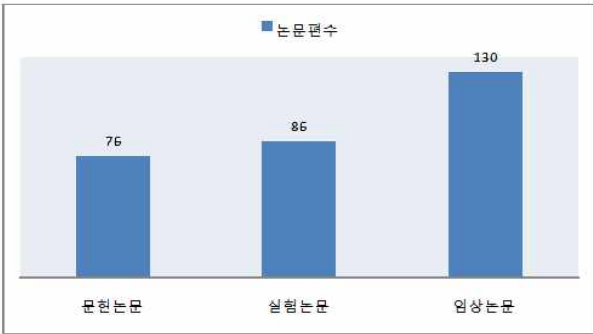


Fig. 9. 논문형식별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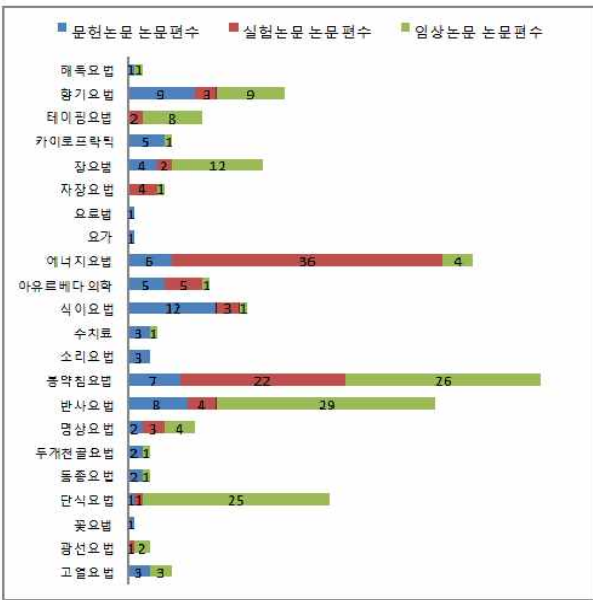


Fig. 10. 논문형식에 따른 보완대체의학별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편수

2.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학문적 연계방향 설정

1) 학회지논문의 분과학회지별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

현재 단식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명상요법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반사요법은 대한침구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봉약침요법은 대한약침학회, 대한침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

고, 에너지요법은 대한침구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성인병학회, 대한한외진단학회, 사상체질의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장요법은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성인병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고, 향기요법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해독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고열요법, 광선요법, 동종요법, 두개천골요법, 소리요법, 수치료,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자장요법, 테이핑요법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꽃요법과 요가, 요요법은 학회 차원의 수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회지논문의 논문형식별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

현재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카이로프랙틱은 문헌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에너지요법은 실험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단식요법, 반사요법, 장요법, 테이핑요법은 임상연구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열요법, 향기요법은 문헌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명상요법, 봉약침요법은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 광선요법, 동종요법, 두개천골요법, 소리요법, 수치료, 자장요법, 해독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꽃요법과 요가, 요요법은 학회 차원의 수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학문적 연계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의 학문적 연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특성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22개의 보완대체의학을 NCCAM의 분류법²³⁾에 따라 나누었다.

NCCAM의 분류는 각 범주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보완대체의학을 다섯 가지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다섯 가지 범주가 가지는 공통적 특성은 그에 속한 보완대체의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각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연구를 어느 학회가 중심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학회라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공통적 특성 이외에도 각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독자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독자적인 특성을 살려 연구를 수행할 학회는 연계학회라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각 보완대체의학의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학회의 연구와 연계된 상태에서 보완대체의학의 독자적 특성에 근거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23) 신현규, 이경구, 황대선. 前掲書, pp.33-35. NCCAM에서는 보완대체의학을 다섯 가지의 분야로 분류하였는데 크게 생물학적 치료 (Biologically Based Practices), 수기요법 (Manipulative and Body-Based Practices), 심신의학 (Mind-Body Medicine), 에너지 의학 (Energy Medicine)의 네 가지 분야와 이 네 가지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종합의료체계 (Whole Medical Systems)의 한 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

Table 4. NCCAM의 분류법에 근거한 보완대체의학 분류표

NCCAM 분류법	보완대체의학
종합의료체계 (Whole Medical Systems)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
생물학적 치료 (Biologically Based Practices)	단식요법(Fasting Therapy) 봉약침요법(Bee Venom Therapy) 식이요법(Diet Therapy) 요법(Urine Therapy) 장요법(Colon Therapy) 향기요법(Aroma Therapy) 해독요법(Detoxification Therapy)
수기요법 (Manipulative and Body-Based Practices)	고열요법(Hyperthermia Therapy) 두개천골요법(Cranio Sacral Therapy) 반사요법(Reflexology) 수치료(Hydro Therap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
심신의학 (Mind-Body Medicine)	꽃요법(Flower Remedy)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Therapy) 소리요법(Sound Therapy) 요가(Yoga)
에너지 의학 (Energy Medicine)	광선요법(Light Therapy) 에너지요법(Energy Therapy) 자장요법(Magnetic Field Therapy)

Table 5. 대한한의학회 분과학회 목록

정회원학회	준회원학회
경락경혈학회, 경락진단학회, 대한동의병리학회, 대한동의생리학학회, 대한본초학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대한안면의학회, 대한약침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의료기공학회, 대한중풍학회, 대한침구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소아과학회,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대한한방제철의학회,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대한한의정보학회, 대한한의진단학회, 대한한의약방제학회, 대한한의학원전학회, 대한형상의학회, 복지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 소문학회,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국의사학회, 한방비만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 한방척추관절학회	대한발효한약학회, 대한한방가정의학회, 대한한방알레르기및면역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한의통증제형학회, 대한한노화학회, 맥진학회, 척추진단교정학회, 한방레이저의학회, 한의안면성형학회, 한의자연요법학회

한의학계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22개의 보완대체의학을 NCCAM의 분류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동종요법(Homeopathic Medicine)과 아유르베다 의학(Ayurvedic Medicine)은 종합의료 체계(Whole Medical Systems)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단식요법(Fasting Therapy), 봉약침요법(Bee Venom Therapy), 식이요법(Diet Therapy), 요법(Urine Therapy), 장요법(Colon Therapy), 향기요법(Aroma Therapy), 해독요법(Detoxification Therapy)은 생물학적 치료(Biologically Based Practices)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고열요법(Hyperthermia Therapy), 두개천골요법(Cranio Sacral Therapy), 반사요법(Reflexology), 수치료(Hydro Therapy),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 테이핑요법(Taping Therapy)은 수기요법(Manipulative and Body-Based Practices)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꽃요법(Flower Remedy), 명상요법(Transcendental Meditation Therapy), 소리요법(Sound Therapy), 요가(Yoga)는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고, 광선요법(Light Therapy), 에너지요법(Energy Therapy), 자장요법(Magnetic Field Therapy)은 에너지 의학(Energy Medicine)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Table 4).

현재 한의학계에는 32개의 정회원학회와 11개의 준회원학회가 운영되고 있다(Table 5). 지금부터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에 근거하여 각 분과학회와 보완대체의학의 학문적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1) 종합의료체계(Whole Medical Systems)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동종요법과 아유르베다 의학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린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동종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되며, 아유르베다 의학은 문헌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험과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2) 생물학적 치료(Biologically Based Practices)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봉약침요법은 대한약침학회, 대한침구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심학회를 통한 공통적 특성을 살린 연구가 요구된다. 단식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 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장요법은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성인병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기요법은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독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단식요법과 장요법, 향기요법, 해독요법의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심학회와 연계학회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식이요법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으며 요법법은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단식요법, 장요법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헌과 실험연구가 요구되고, 봉약침요법은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헌연구가 요구된다. 식이요법은 문헌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험과 임상연구가 요구되고, 향기요법은 문헌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해독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법법은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인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3) 수기요법(Manipulative and Body-Based Practices)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반사요법은 대한침구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심학회를 통한 공통적 특성을 살린 연구가 요구된다. 카이로프랙틱은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공통적 특성을 살린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연계학회를 통한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가 요구된다. 고열요법, 두개천골요법, 수치료, 테이핑요법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고열요법은 문헌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험연구가 요구되고, 반사요법, 테이핑요법은 임상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헌,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카이로프랙틱은 문헌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되며, 두개천골요법, 수치료는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4) 심신의학(Mind-Body Medicine)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명상요법은 동의신경정신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공통적 특성을 살린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연계학회를 통한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가 요구된다. 소리요법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으며, 꽃요법, 요가는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명상요법은 실험연구와 임상연구 위주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헌연구가 요구된다. 소리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꽃요법, 요가는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인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5) 에너지 의학(Energy Medicine)

분과학회의 보완대체의학 수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요법은 대한침구학회, 대한한방내과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한방성인병학회, 대한한진단학회, 사상체질의학회,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서 중심이 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독자적 특성을 살린 연구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나 중심학회를 통한 공통적 특성을 살린 연구가 요구된다. 광선요법, 자장요법은 뚜렷이 연구를 주도하는 학회가 없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공통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에너지요법은 실험연구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문헌, 임상연구가 요구되고, 광선요법, 자장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보완대체의학에 관한 한의학계의 학위논문과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고 한의학과 학문적 연계방향 설정을 통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한의학계의 수용방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학위논문과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의 연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위논문의 연구현황은 봉약침요

법, 에너지요법, 단식요법, 장요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실험논문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회지 및 학술지 논문의 연구현황은 봉약침요법, 에너지요법, 반사요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임상논문, 실험논문, 문헌논문의 순으로 연구가 활발함을 알 수 있었다.

한의학계의 보완대체의학 수용방향은 NCCAM의 분류에 따른 보완대체의학의 공통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중심학회와 각 보완대체의학이 가지는 독자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할 연계학회를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사요법, 봉약침요법, 에너지요법은 중심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고, 명상요법, 카이로프랙틱은 연계학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단식요법, 장요법, 향기요법, 해독요법은 현재의 연구 경향을 벗어난 공통적 및 독자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열요법, 광선요법, 동종요법, 두개천골요법, 소리요법, 수치료,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자장요법, 테이핑요법, 꽃요법, 요가, 요료법은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중심학회와 연계학회의 연구를 통한 기본적 특성과 독자적 특성을 살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요법, 아유르베다 의학, 카이로프랙틱은 실험, 임상연구가 필요하고, 에너지요법은 문헌,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단식요법, 장요법은 문헌과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명상요법, 봉약침요법은 문헌연구가 필요하고, 고열요법, 반사요법, 향기요법, 테이핑요법은 실험연구가 필요하며 동종요법, 해독요법, 두개천골요법, 수치료, 광선요법, 자장요법, 소리요법은 아직 연구실적이 저조하고 논문형식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요료법, 요가, 꽃요법은 학회 차원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으로 문헌, 실험,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전세일. 현대의학과 대체의학(계간 과학사상 겨울). 서울, ㈜범양사, 2001.
2. 김광호, 강탁림 외 5명 편저. 양방예방의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4.
3. 전세일. 보완대체의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4.
4. 오홍근. 보완대체의학. 서울, 아카데미아, 2008.
5. 신현규, 임병목. 세계 전통의학 연구기관의 연구 동향 분석. 한국한의학연구원논문집 8(2), 2002.
6. 한창연. 미국의 보완대체의학 R&D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23), 2005.
7. 이용세. 대체의학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1999.
8. 방건웅. 해외에서의 대체의학에 대한 제도적 대응현황. 한국정신과학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1.
9. 신현규, 이경구, 황대선. 세계 대체의학시장의 현황 및 향후

-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7.
10. 최준영. 외국의 보완요법현황. 의료정책포럼 5(2), 2007.
 11. 헬스조선,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0/2007032000960.html>, (2011.04.05).
 12.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55>>, (2011.04.05).
 13.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2>>, (2011.04.05).
 14.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243>>, (2011.04.05).
 15. 민족의학신문,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5>>, (2011.04.05).